

제1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2007년 UN은 10월 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로 제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국제 포럼

2020. 10. 15.(목) 14:00~16:30

[초청강연] 유튜브 (14:00~15:00)

[대담] 줌(ZOOM) (15:20~16:30)



■ 초청강연 ■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촌 여성들의 역할
(The Role of Rural Women i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반다나 시바 박사(Dr. Vandana Shiva)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 차



■ 초청강연 1

▣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촌 여성들의 역할

(The Role of Rural Women i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반다나 시바 박사(Dr. Vandana Shiva)

■ 토 론

토론1 28

- ▣ 위기의 해법은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윤금순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토론2 31

- ▣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촌 여성들의 역할
김정희 (가배울 상임이사)

토론3 34

- ▣ 지속가능한 미래, 에코페미니즘을 통해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p>초청 강연</p>	<p>반다나 시바 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Navdanya Director ◦ 에코페미니스트
<p>진행</p>	<p>김영란 포럼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위 본위원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p>토론</p>	<p>윤금순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p>토론</p>	<p>김정희 상임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배울 상임이사 ◦ 에코페미니즘 학자
<p>토론</p>	<p>오미란 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초청강연-

The Role of Rural Women i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촌 여성들의 역할

Dr. Vandana Shiva
반다나 시바 박사

An Existential Crisis and Multiple Emergencies

존재의 위기와 복합적인 비상사태

We are facing an existential crisis with multiple emergencies.

우리는 복합적인 비상사태와 함께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The present path humanity is on is clearly non sustainable because it is destroying life on Earth.

현재 인류가 선택한 길은 지구상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A global pandemic has shut down economies and societies. Chronic diseases including cancer, diabetes, infertility are increasing as real food is substituted with unhealthy industrial ultra processed food.

세계적인 팬더믹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가 마비되고 있다. 진짜 먹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산업적 초가공(ultra processed)식품으로 대체되면서 암, 당뇨, 불임과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Fires are burning in Serbia, the Amazon and USA. Hurricanes are striking with increased intensity and frequency in Korea and India. Floods have submerged villages in Sudan and draughts are drying up the rainforests which should be creating and receiving heavy rain. I call this climate chaos. It is a result of disrupting the ecological cycles and wiping out

the biodiversity of species that maintain the living planet and the infrastructure of life.

세르비아, 아마존, 미국에서는 불길이 번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에서 태풍은 보다 잦아지고 강도를 더해간다. 홍수로 인해 수단의 마을이 물속에 잠겼고, 많은 비가 생성되고 내려야 할 열대우림은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다. 나는 이것을 기후 카오스(climate chaos)라고 부른다. 이는 생태적인 순환을 교란시킨 결과이며, 살아있는 지구와 생명의 기반을 유지시키는 종 다양성을 말살시킨 결과이다.

Species are being pushed to extinction, with 200 going extinct every day. One million are threatened with extinction. Nearly 70% mammals, birds, amphibians, reptiles and fish are facing decline in their population.

매일 200개의 종이 사라지면서, 멸종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100만개의 종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의 약 70%가 개체수 감소를 앞두고 있다.

Non sustainability and multiple emergencies which are destroying the very infrastructure of life is creating a possibility of extinction of the human species.

지속불가능성과 복합적인 비상사태로 인해 생명의 기반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Non sustainability is rooted in Separation and Invisibility of Women's Knowledge and Work.

지속불가능성은 여성의 지식과 노동의 분리와 비가시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The health emergency that the corona virus is waking us up to is connected to the emergency of extinction and disappearance of species, and it is connected to the climate emergency.

During the past few centuries, multiple separations, divides and hierarchies were imposed on society and the planet.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보건 비상사태는 종의 소멸과 멸종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기후 비상사태와도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다양한 분리, 차이, 계층이 사회와 지구에 부과되었다.

Humans were separated from Nature and other species. The Earth and other species were objectified and seen as dead matter to be exploited, manipulated as raw material and then thrown away as pollution and waste.

인간은 자연과 다른 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지구와 다른 종은 원료로 채굴되고 가공된 후 오염물질과 폐기물로 버려질 수 있는 죽은 물질로 여겨지고 대상화되었다.

The rural areas were separated from urban areas, and living in the city was made to look like a “superior” life, staying in rural areas was “backwardness”. This has been referred to as the metabolic rift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

농어촌은 도시로부터 분리되었고, 도시에 사는 것이 마치 더 “우월한” 삶인냥 여겨지는 반면 농어촌에 머무르는 것은 “뒤쳐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 일컬어 도시와 촌락 간 신진대사 균열(metabolic rift)이라고 한다.

Women and men were separated through a gender divide, and men were presented as superior through different forms and structures of patriarchy.

여성과 남성은 성별 구분을 통해 분리되었고, 남성은 가부장제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통해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다.

All emergencies are rooted in this industrial, mechanistic, militaristic, anthropocentric, patriarchal world view of humans as separate from nature and superior to other beings who can be owned, manipulated and controlled for profit and power, of men as superior to women, of whites as superior to the diversity of colours of humanity.

모든 비상 상태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며,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월하기에,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고, 백인은 다양한 유색의 인류보다 우월하기에, 이윤과

권력을 위해 이들을 소유, 조작, 통제할 수 있다는 산업적, 기계론적, 군국주의적, 인간세계중심적, 가부장적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The global interconnected crises are also rooted in an economic model based on extractivism, the illusion of limitless growth and limitless greed which systematically violates species integrity, ecosystem limits and planetary boundaries, which ignores women's knowledge and work.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위기는 채굴주의(extractivism), 무한한 성장과 무한한 탐욕이라는 환상에 기반한 경제 모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경제 모델 속에서 종의 온전성, 생태계의 한계, 지구의 경계는 체계적으로 훼손되며, 이는 여성의 지식과 노동을 무시한다.

Women's knowledge was made invisible with the rise of Bacon's "Masculine Birth of Time" which displaced ecological and embodied knowledge as not knowledge, and elevated mechanistic reductionist knowledge based on separation, reductionism and denial of life and its interconnections as "Science". Soil was reduced to an empty container for pouring synthetic fertilisers. Plants and animals were reduced to machines to be manipulated, genetically engineered, owned through patents.

베이컨의 "남성적인 시간의 탄생"이 이뤄지면서 생태적이고 체화된(embodied) 지식은 지식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분리와 환원주의, 생명에 대한 거부와 "과학"이라는 상호연결에 기반 한 기계론적인 환원주의적 지식이 부상하게 되었고, 여성의 지식은 비가시화되었다. 토양은 합성 비료를 들이붓기 위한 빈 용기로 전락했다. 동식물들은 조작되고, 유전적으로 변형되며, 특허를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었다.

Women's work in co creation and coproduction with the Earth to produce the food that nourishes society and regenerates the Earth was counted as non work, devalued and not counted.

사회에 양분을 주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구를 재생시키기 위해 지구와 더불어 창조하고 생산해왔던 여성들의 노동은 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평가

절하되었으며, 인정되지 않았다.

Industrial, Globalised agriculture that ignores the creativity of Nature and Women is at the root of the multiple emergencies

자연과 여성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산업적이고 세계화된 농업이야말로 복합적인 비상사태의 주범이다.

The mechanistic industrial paradigm of agriculture, combined with the rule of corporate globalisation, which puts profits before life, has brought us to the brink of survival. Today, we face an existential threat with climate catastrophes, species extinction, a water crisis, nutrition and health crises.

기업주도 세계화의 질서와 결합된 기계론적인 농업의 산업적 패러다임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우리를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재앙, 종 소멸, 물 위기, 영양 및 보건 위기로 존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As I have analysed in my book “Soil Not Oil” 50% of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driving Climate Change are from an industrial globalised food system.

나의 책 “석유에서 흙으로(Soil Not Oil)”에서 분석한 바 같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절반은 세계화된 산업적 식품 체계에서 비롯된다.

Source:

<https://www.amazon.in/Soil-Not-Oil-Environmental-Justice/dp/1623170435>

출처:

<https://www.amazon.in/Soil-Not-Oil-Environmental-Justice/dp/1623170435>

In “Water Wars” I have shared my research on how industrial chemical agriculture is responsible for the water crisis .

“물전쟁(Water Wars)”에서는 산업적인 화학 농업이 어떤 식으로 물 위기의 원인이 되는지에 관한 나의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Source: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539066/water-wars-by-vanda>

na-shiva/

출처: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539066/water-wars-by-vandana-shiva/>

In “Who really feeds the World”, I have synthesised data from the UN on how unsustainable agriculture is responsible for 75% of the land degradation and desertification.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Who really feeds the World)”에서 나는 유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의 75%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으로 인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Source: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536677/who-really-feeds-the-world-by-vandana-shiva/>

출처: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536677/who-really-feeds-the-world-by-vandana-shiva/>

Biodiversity erosion and extinction is a result of the Monoculture of the Mind. In Agriculture it is linked to the chemical monocultures on which the global commodity system is based.

생물다양성의 침식과 멸종은 사고의 단작(Monoculture of the Mind)의 결과이다. 이는 글로벌 상품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화학적인 단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Industrial agriculture is ignorant of how nature works. It has its roots in war chemicals made by IG Farben for killing people in Hitler’s concentration camps and the wars. It is based on a militarised mind and the science of making war. When war chemicals are introduced into agriculture as agrichemicals and external inputs, they promote monocultures of a few commodities. Self organised systems can evolve in cooperation towards diversity. External input systems shape monocultures and uniformity.

산업적 농업은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산업적 농업의 뿌리는 히틀러의 강제 수용소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이계파르벤(IG Farben)이 만들어낸 전쟁 화학물질에 있다. 이는 군사화된 사고와 전쟁을 만들어내는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쟁 화학물질이 농약과 외부 투입물로 농업에 도입되면서, 소수

상품의 단작을 촉진했다. 자기 조직적 시스템은 다양성을 향한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반면 외부 투입 시스템은 단작과 획일성을 형성한다.

Many extinctions and disappearances are a result of an agriculture based on monocultures of the mind.

멸종과 소멸은 많은 경우 사고의 단작에 기반한 농업의 결과이다.

First, it displaces systems knowledge of interconnectedness with reductionist, mechanistic knowledge. It reduces living systems to dead inert matter which need war chemicals to produce food.

먼저, 상호연결성의 시스템 지식은 환원주의적, 기계론적 지식으로 대체된다. 이는 살아있는 체계를 죽어있는 불활성 물질로 환원시키며,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쟁 화학물질을 필요로 한다.

Secondly it displaces diversity of crops in our fields and food in our diets . Since food is culture, it displaces our local indigenous diverse cultures of healthy eating with a global monoculture of junk food and ultra processed foods, spreading disease and ill health.

다음으로, 단작에 기반한 농업은 우리 논밭에서 자라는 다양한 작물과 우리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먹거리를 대체한다. 음식은 문화이기에, 다양한 토착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는 정크푸드와 초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지구적 단작으로 대체되어 질병을 퍼뜨리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The mechanistic assumption that nature is dead matter, not a complex self organised living system, and that women have no intelligence and knowledge, has been instrumental in disrupting nature's ecological processes, her self organizing capacity to regulate her climate, her nutrient and water cycles, the integrity of her diverse species and ecosystems. It has pushed rural women to the margins of the dominant food system even though most farmers are women, and women in every society and culture are the primary food producers and providers.

자연을 살아있는 자기 조직적 시스템이 아니라 죽은 물질로 간주하며, 여성은 지능과 지식이 없다고 보는 기계론적 가정은 자연의 생태적인 과정을 방해하고, 기후, 양분, 물의 순환을 조절하는 자기 조직 능력을 교란했으며, 다양한 종들과 생태계의 온전성을 파괴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농업인의 다수가 여성이고,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에서 먹거리의 생산자와 공급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여성을 지배적인 식량체계의 주변으로 밀어냈다.

The mechanical mind and toxic chemicals derived from fossil fuels have led us away from the path of treading lightly on a fragile planet, with intelligence and care. The move away from “life giving” generative ecological thinking and acting, to toxic -“life taking” thinking and practices and “Monoculture of the Mind” is most evident in the way we produce and distribute our food, the most basic necessity of life. Food is the currency of life. Global Corporations made it the currency of disease and degeneration.

화석 연료에서 비롯한 기계론적 사고와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우리는 지력과 돌봄을 통해 연약한 지구를 부드럽게 대하는 길로부터 멀어졌다. “생명을 주는” 비옥한 생태적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떨어져 “생명을 앗아가는” 생각과 관행, 그리고 “사고의 단작”으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 필수품인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은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는다. 먹거리는 생명의 화폐이다. 글로벌 기업은 먹거리를 질병과 퇴화의 화폐로 전락시켰다.

Agriculture is care for the land. It is born of the culture of caring. Rural women are experts in the science of sustainability because they practise economies of care for the Earth and society.

농업은 땅을 돌보는 일이다. 이는 돌봄의 문화에서 태어난다. 농어촌 여성들은 지구와 사회를 위한 돌봄의 경제를 실천하기에 지속가능성 과학의 전문가이다.

In agriculture, the science of life is emerging as Agroecology.

농업 부문에서 생명의 과학은 농생태학(Agroecology)이라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Source: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hlpe/hlpe_documents/HLPE_Reports/HLPE-Report-14_EN.pdf

출처:

http://www.fao.org/fileadmin/user_upload/hlpe/hlpe_documents/HLPE_Reports/HLPE-Report-14_EN.pdf

Agroecology is a systems science, an ecological science of agriculture based on nature's ecological laws. Humans co-create with nature to renew and regenerate living soil, living seed, our health and local living economies. Ecological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sustain and renew nature and communities.

농생태학은 자연의 생태적 법칙에 기반한 농업 생태학이자 시스템 과학이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하는 창조를 통해 살아있는 토양, 살아있는 씨앗, 우리의 건강과 지역의 생활경제를 새롭게 하고 재생시킨다. 생태적인 농업 먹거리 체계는 자연과 공동체를 유지하며 재생시킨다.

Agroecology is the umbrella term of all ecological agriculture systems that work with nature, for life. These include Permaculture, Biodynamic, Natural Farming and Organic farming. Rural Women have kept systems of Agroecology alive and provide the link of human societies to the Earth. They are the bridge to the future by embodying the time tested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in their every day practices.

농생태학은 생명을 위해 자연과 함께 작동하는 모든 생태적 농업 체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여기에는 퍼머컬처, 생명역동농업, 자연 농업, 유기 농업이 포함된다. 농어촌 여성들은 농생태학의 시스템을 살아있도록 해왔으며, 인간 사회와 지구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There are two paradigms of science and knowledge. The first paradigm is holistic and aligned with nature and her Ecological laws. This is the paradigm that rural women have evolved, sustained and renewed over thousands of years of sustainable agriculture policy. It is a dynamic living paradigm that evolves with time to respond to chang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is the paradigm that will allow us to

overcome the multiple emergencies. This is the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과학과 지식에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전체론적인 것으로, 자연과 자연의 생태적 법칙과 상통한다. 이것은 농어촌 여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통해 발전시키고 유지해오며 쇠신시켜온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및 환경 조건에 맞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패러다임이다. 이는 우리에게 복합적인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러다임이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패러다임이다.

The second is reductionist, mechanistic and extractive, derived from the militaristic monoculture of the mind, that has its roots in colonisation, It serves the Global Corporations and their profits, not the Earth and the people. Because it works against nature, it is non sustainable. It is at the root of the multiple interconnected emergency. Continuing on this path of limitless profits and power is a guarantee of destroying the social and ecological conditions of human life on earth.

두 번째는 군국주의적인 사고의 단작에서 비롯된 환원주의적, 기계론적, 채굴적인 패러다임으로, 식민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지구와 사람들이 아닌 글로벌 기업과 기업의 이윤을 뒷받침한다. 자연에 반해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상호 연결된 복합적 위기 상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무한한 이윤과 권력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구상의 인산 삶의 사회적, 생태적 조건을 파괴하게 된다.

Source: Shiva, V. (1993).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출처: Shiva, V. (1993).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The sustainability imperative to shift to an Earth Centred, Women Centred World view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구 중심적, 여성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

The path to a sustainable future requires abandoning the dividing and destructive illusions that have created an economic emergency, a food

emergency, a health emergency. The first three SDG's of No poverty, Zero Hunger and Good Health and Well being can be reached if Rural Women lead the way in a transition to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상사태, 먹거리 비상사태, 보건 비상사태를 만들어낸 파괴적이며 분열적인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 가장 앞에 등장하는 세 가지 목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은 농어촌 여성이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의 길을 이끌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

Avoiding extinction and collapse needs a change in our world view and paradigms of knowledge and the economy, change in values and systems, a change from the idea that humans are masters and owners of the Earth, to the recognition that we are part of the nature, we are all members of one Earth Family, that all life is interconnected, that all humans are equal irrespective of gender, race, religion, work.

멸종과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지식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가치와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자 소유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지구 가족의 일원이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젠더, 인종, 종교, 노동과 관계없이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We need to shift from Monocultures of the Mind to Biodiversity.

We need to shift from Fossil Fuel, chemical industrial agriculture driving the health emergency, the climate emergency and the threat of extinction to the Science of Living Systems and Regenerative ecological food systems which nourish the planet and people.

우리는 사고의 단작에서 벗어나 생물 다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 비상상태, 기후 비상사태, 멸종의 위협을 초래하는 화석 연료와 화학적인 산업적 농업에서 벗어나 지구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체계, 재생적인 생태적 먹거리 체계로 전환을 해야 한다.

Source:

<https://www.amazon.in/BIODIVERSITY-AGROECOLOGY-REGENERATIVE-ORGANIC-AGRICULTURE/dp/8193887204>

출처:

<https://www.amazon.in/BIODIVERSITY-AGROECOLOGY-REGENERATIVE-ORGANIC-AGRICULTURE/dp/8193887204>

Women creating an Earth Centred, women centred food and agriculture system are showing how we can change the economic paradigm and knowledge paradigm, remove poverty, hunger and disease while addressing the multiple emergencies. We are the change we want to see.

지구 중심적이고 여성 중심적인 농업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여성들은 복합적인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패러다임과 지식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방법과 빈곤, 굶주림,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보여준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변화인 것이다.

I evolved the concept of “Monocultures of the Mind” when I studied the Green Revolution in Punjab after the violence of 1984 and wrote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나는 인도 펀자브 지역에서 1984년 폭력사태 이후 녹색혁명에 대해 공부하고 “사고의 단작” 개념을 발전시켜, “녹색혁명의 폭력(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을 집필했다.

Source:

<https://www.amazon.in/Violence-Green-Revolution-Agriculture-Politics/dp/0813166543>

출처:

<https://www.amazon.in/Violence-Green-Revolution-Agriculture-Politics/dp/0813166543>

I realised that rice and wheat monocultures of so called High Yielding Varieties(HYV) were not producing nutrition and health, for the soil, or for people. The soil was dying, farmers were dying and people were dying of cancer, with a cancer train taking victims from Punjab to a charitable hospital in Bikaner, Rajasthan.

나는 소위 말하는 다수확 품종(HYV) 쌀과 밀의 단작이 토양과 인간에게 영양과 건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양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농민은 죽어가고, 사람들은 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다. 암 환자들을 실은 열차는 펀자브에서

라자스탄의 비카네르에 있는 자선 병원을 향해 달렸다.

Source: Shiva, V. (1991).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p 69.
출처: Shiva, V. (1991).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p 69.

Source: Shiva, V. (1993).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출처: Shiva, V. (1993).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Women and Biodiversity Feed the World

여성과 생물다양성이 세계를 먹여살린다

Industrial agriculture has been based on the false claim that it produces more food and is necessary for feeding people.

산업적 농업은 그러한 방식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필요하다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해왔다.

There are multiple levels at which this claim is proving to be false.

다양한 수준에서 이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FAO, only 20% of the food we eat comes from large industrial plants. The rest comes from small farms.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의 20%만이 거대 산업적 농장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작은 농장에서 생산된다.

Source: <http://www.fao.org/3/a-i4036e.odf>
출처: <http://www.fao.org/3/a-i4036e.odf>

My own research over the past three and a half decades has shown that biodiversity is the path for feeding the world. Monocultures produce more yields of commodities of rice, wheat, corn, soya. But these commodities are rotting in godowns or being fed to animals or being converted to biofuel to drive cars.

지난 35년 동안 이뤄진 나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야말로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단작을 한다면 상품으로서의 쌀, 밀,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창고에서 썩어가거나, 가축들에게 사료로 주어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연료로 전환된다.

We need to move away from measuring “yield per acre”, a misleading measure created by the Monoculture of the Mind, which pushes farmers to produce nutritionally empty toxic monocultures at high economic cost to rural families, high ecological cost to the Earth, and high health costs to consumers.

우리는 사과의 단작이 만들어낸 “단위면적당 생산량”이라는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는 영양이 비어있는 유독성 단작을 하도록 농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농어촌 가정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지구에는 높은 생태적 비용을 치르게 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값비싼 건강 비용을 들이게 한다.

I questioned the false metric of “Yield per Acre” which was used to hide the true productivity of farming systems.

나는 농업 체계의 진정한 생산성을 감추는 데 사용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라는 거짓된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Yield per Acre” merely measures the weight of nutritionally empty commodity that leaves the farm, not the health of the farm, the farmer, or the food. It is a measure of farming as an extractive industry, not real farming. It is an illusionary measure that has displaced biodiversity for monocultures of commodities based on chemical inputs. It does not count the total biodiverse output, or the total costs of inputs, or the state of the soil and the farm. It does not take the farming system into account, nor the total output. It only measures the “yield” of a single commodity, which is only one part of one plant. It excludes the high costs of external inputs and their ecological and social impacts. And it excludes the biodiversity of outputs and functions of biodiversity.

“단위면적당 생산량”이라는 개념은 농장, 농민, 먹거리의 건강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농장을 떠나버리는 영양학적으로 빈 상품의 무게를 측정할 뿐이다. 진정한

농업이 아닌, 채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척도이다. 화학적 투입물에 기반 한 상품의 단작으로 생물다양성을 대체해버린 공허한 척도이다. 생물다양성의 총생산량이나, 투입물의 총비용이나, 토양과 농장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 척도이다. 농업 시스템이나 총생산량 역시 고려하지 않는다. 한 공장의 한 부분일 뿐인 단일 상품의 “생산량”만을 쟁한다. 고비용의 외부 투입물과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생산물의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 역시 제외된다.

When looked at the system holistically in a systems perspective instead of looking at a farming system through the reductionist blinkers of Monocultures of the Mind, “high yielding varieties” are in fact low yielding. The UN has stated that High Yield Varieties(HYV) are misnomer. They should be called High Response Varieties(HRV) because they have been bred to respond to chemical inputs and are not high yielding in themselves.

농업 시스템을 사과의 단작이라는 환원주의적 눈가리개를 통해 보는 대신 시스템적 관점에서 전체론적으로 본다면, “다수확 품종”은 사실 생산량이 낮다. 유엔 역시 다수확 품종(HYV)이 잘못된 명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품종은 생산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화학 물질 투입에 반응하도록 개발된 것이므로 고반응 품종(High Response Varieties, HRV)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Source: Shiva, V. (1991).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p 69.
출처: Shiva, V. (1991).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p 69.

“Yield” is not a measure of care for the land. As Leibig, the founder of organic chemistry stresses in his book *The Search for Agricultural Recycling* which he wrote in 1861, what matters is “not ‘yield of harvest’, but the state in which the field is left”. Leaving the soil in a better condition after the harvest is care for the land which ensures future food security. Chemical fertilisers leave the field in worse health, destroy the soil food web which creates soil fertility, and hence undermine food productivity and food security.

“생산량”은 땅의 돌봄에 대한 척도가 아니다. 유기 화학의 창시자 라이빅이 1861년 집필한 저서 “농업 재순환의 탐구(The Search for Agricultural Recycling)”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수확량(yield of harvest)’이 아니라 수확 후 밭을 상태”이다. 수확 후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땅을 돌보는 일이자,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화학 비료는 논밭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토양 비옥도를 생성하는 토양의 먹이 사슬을 파괴하고, 따라서 먹거리의 생산성과 식량 보장을 약화시킨다.

Source: Shiva, V. (2008). *Soil Not Oil: Environmental Justice in a Time of Climate Crisis*. North Atlantic Press
출처: Shiva, V. (2008). *Soil Not Oil: Environmental Justice in a Time of Climate Crisis*. North Atlantic Press

Since synthetic fertilisers are fossil fuel based, they contribute to the disruption of the carbon cycle. But they also disrupt the nitrogen cycle. This disruption is the violation of planetary boundaries and the driver of climate change. And they disrupt the hydrological cycle, both because chemical agriculture needs ten times more water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food than organic farming, and because it pollutes the water in rivers and oceans. Synthetic fertilisers have contributed to the death and desertification of soils, climate change, and dead zones in the oceans.

합성 비료는 화학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 순환을 교란하는 데 일조한다. 질소 순환 역시 어지럽힌다. 이는 지구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며, 기후 변화의 동력이다. 물의 순환도 교란되는데, 첫째는 화학적 농업이 유기농업에 비해 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 10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강과 해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합성 비료는 토양의 죽음과 사막화, 기후 변화, 해양에서의 죽음의 지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Returning organic matter to the soil builds up soil nitrogen. A recent study we have undertaken at Navdanya shows that organic farming has increased nitrogen content of soil between 44-144 %, depending on the crops.

유기물이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 토양 질소가 축적된다. 최근 우리가 인도 나브다냐(Navdanya)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토양의 질소 함량을 작물에 따라 44~144% 증가시킨다.

Source:

<https://www.navdanya.org/site/latest-news-at-navdanya/617-seeds-of-hope-report>.

<https://www.amazon.in/BIODIVERSITY-AGROECOLOGY-REGENERATIVE-ORGANIC-AGRICULTURE/dp/8193887204>

출처:

<https://www.navdanya.org/site/latest-news-at-navdanya/617-seeds-of-hope-report>.

<https://www.amazon.in/BIODIVERSITY-AGROECOLOGY-REGENERATIVE-ORGANIC-AGRICULTURE/dp/8193887204>

Rural women do not think and work through commodification and reductionism. They manage the farm as their home, have a sense of place and belonging, and develop multifunctional systems based on care for the health of the soil, health of their families and health of their communities.

농어촌 여성들은 상품화와 환원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다. 이들은 농장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가꾸고, 장소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토양, 건강한 식구들,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돌봄에 기반 해 다기능적 체계를 발전시킨다.

The real metric we should be measuring is “nutrition per acre” or “health per acre” in a biodiversity paradigm, not yield per acre in the paradigm of a Monoculture of the Mind.

우리가 재야 할 진짜 척도는 생물다양성 패러다임 속에서의 “단위면적당 영양”이나 “단위면적당 건강”이지, 사과의 단작 속에서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아니다.

To evolve alternatives to the misleading construct of “yield” evolved within a paradigm of the Monoculture of the Mind, I started to assess the Biodiversity Based Productivity of farms, based on total biodiverse outputs of farming systems, comparing the output of biodiverse organic farms with chemical monocultures.

사과의 단작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해온 “생산량”이라는 기만적 구조물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자, 나는 농장에서의 ‘생물다양성 기반 생산성’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농업 시스템의 생물다양성 총생산량에 기반한 것으로, 화학적 단작의 생산량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유기농장의 생산량을 비교한다.

On the basis of Biodiversity Based Productivity, Navdanya has evolved the metric of biodiversity and “nutrition per acre” using the nutritional data on indigenous food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

‘생물다양성 기반 생산성’에 의거해 나브다냐는 국립 영양 연구소의 토착 먹거리에 대한 영양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과 “단위면적당 영양”에 관한 척도를 발전시켰다.

The false claim that ‘Chemicals produce more food’ and are necessary to feed the world is based on the claim of productivity gains and the higher “yield per acre” of the Green Revolution, but as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 and *Health Per Acre* show, this was just a false comparison.

‘화학물질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며, 고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하다는 거짓된 주장은 녹색혁명의 생산성 향상과 더 높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혁명의 폭력”과 “단위면적당 건강”에서 지적했듯, 이는 거짓된 비교이다.

Source: Shiva, V., & Singh, V. (2011). *Health Per Acre: Organic Solutions to Hunger and Malnutrition*. Navdanya/ 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 Ecology.

출처: Shiva, V., & Singh, V. (2011). *Health Per Acre: Organic Solutions to Hunger and Malnutrition*. Navdanya/ 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 Ecology.

If instead of chemical intensification and capital intensification of our agriculture, we intensified food production ecologically and in terms of biodiversity, we can feed two times India’s population with healthy, balanced food as the Navdanya study *Health per Acre* shows. And this principle of biodiversity intensification applies in every ecosystem.

나브다냐에서 진행한 연구 “단위면적당 건강”에서 보여주었듯 우리의 농업을 화학적 집약화, 자본 집약화를 시키는 대신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생태적인 먹거리 생산을 강화한다면 인도 인구의 두 배가 되는 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다양성 강화 원칙은 모든 생태계에 적용된다.

Biodiversity rich agriculture produces more nutrition per acre. We are a biodiversity rich continent, with biodiversity rich agriculture, and biodiversity rich diets. And biodiversity is the key to the health of the planet, the health of our soils, the health of our biodiversity. Biodiversity is the basis of sustainability. And it is the basis of our health.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농업은 단위면적당 더 많은 영양분을 생산한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대륙에 살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농업,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식단을 가지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건강한 지구, 건강한 토양, 우리 생물다양성의 건강의 핵심이다. 생물다양성은 지속가능성의 기반이며, 생물다양성은 건강의 기반이다.

Organic mixed cropping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mono cropping produces on an average:

- 106% more copper
- 61% more manganese
- 243% more molybdenum
- 64% more zinc
- 120% more chromium
- 72% more of all trace elements when taken together.

관행농의 단작과 비교했을 때 유기농 혼작이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양분은 다음과 같다.

- 구리 106% 증가
- 망간 61% 증가
- 몰리브데넘 243% 증가
- 아연 64% 증가
- 크로뮴 120% 증가
- 전체 미량원소 72% 증가

Source: Shiva, V. (1993).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출처: Shiva, V. (1993). *Monocultures of the Mind: Perspectives on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Palgrave Macmillan

Source: Shiva, V., & Singh, V. (2011). *Health Per Acre: Organic Solutions to Hunger & Malnutrition*. Navdanya/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 Ecology.

출처: Shiva, V., & Singh, V. (2011). *Health Per Acre: Organic Solutions to Hunger & Malnutrition*. Navdanya/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 Ecology.

Diversity in our farms and on our plates is the answer to rural poverty , malnutrition and hunger and disease. Farming according to principles of diversity and nature's law of return is the only way to farm sustainably, with permanence and meet SDG 1, 2, 3.

농장과 밥상의 다양성은 농어촌 빈곤, 영양실조, 굶주림, 질병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다양성과 자연의 되돌림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농업을 지속가능하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3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Source: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536677/who-really-feeds-the-world-by-vandana-shiva/>

출처: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536677/who-really-feeds-the-world-by-vandana-shiva/>

It is this science of Biodiversity and interconnectedness between Living soil, Living Seed, Living Food, Living Economies of wellbeing which I have been researching and practicing and promoting through Navdanya for the last 3 decades.

This rich Biodiversity of living knowledge is conserved and regenerated in every culture by rural women.

내가 지난 30년동안 나브다냐를 통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알려진 것은 생물다양성의 과학이며, 살아있는 토양, 살아있는 씨앗, 살아있는 먹거리 간 상호연결성의 과학이다.

Seeds of Hope, Seeds of Freedom, Seeds of Resilience

희망의 씨앗, 자유의 씨앗, 회복의 씨앗

Seed is the source of life. It is the first link in the food system.

씨앗은 생명의 원천이다. 씨앗은 먹거리 체계에서의 첫 번째 연결고리이다.

Women's Seed Sovereignty is central to rural women's knowledge and economic sovereignty. Biodiversity of Seeds is the basis of ecological and economic resilience in these times of uncertainty and breakdown.

여성의 종자주권은 여성의 지식과 경제적 주권에 있어 핵심이다. 종자의 생물다양성은 불확실성과 붕괴의 시기에 있어 생태적, 경제적 회복력의 기초이다.

Women have been the guardians of the seeds for centuries. In a study by Navdanya(Shiva, *Staying Alive*, pXVI), it was found that in 60% of the examples of the study women are the ones who decide what type of seed is used, while men only do it in 40% of cases. On farms where they use their own seeds, the decision is exclusively made by women 81.2% of the time. But when a masculinist market driven mind sets in, men get trapped by global corporations to buy seeds and agrochemicals, trapping them in debt and even driving them to suicide.

여성은 수 백년 동안 씨앗의 수호자였다. 나브다냐에서 진행한 한 연구(Shiva, *살아남기*, p.XVI)에 따르면, 연구 사례의 60%에서 여성들이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했으며, 연구의 40%에서만 남성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자신들의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의 경우 의사결정의 81.2%가 오직 여성에 의해서 내려진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시장주의 사고가 자리를 잡으면서, 남성들은 글로벌 기업의 텃에 걸려 종자와 농약을 사게 되었으며 빛의 굴레에 갇혔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을 자살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In 1987, when I was attending a conference on the "Laws of Life", on the new biotechnologies, I first heard the Poison Cartel(the group of chemical companies including the erstwhile IG Farben) attempting to define living organisms, and seeds, as machines that they had invented and wanted to patent. I was aware that the seed is not a machine assembled by chemical corporations. It is the embodiment of biodiversity and nature's urge to reproduce, renew and multiply.

1982년 새로운 생명공학에 관한 “생명의 법칙(Laws of Life)”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유독성 카르텔(이게파르벤을 포함하는 화학 기업 집단)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명해온 기계처럼 살아있는 유기체, 씨앗을 정의하고, 특허를 받고자 했다. 나는 씨앗은 결코 화학 기업들이 조립한 기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씨앗은 생물다양성의 상징이며, 번식하고, 변화하고, 증식하고자 하는 자연적 힘의 상징이다.

Genetically modified seeds are seeds pirated from farmers, and modified with genes of naturally occurring bacteria. The only “invention” is shooting genes in a lab with a gene gun or infecting a cell with Agrobacterium, a plant cancer. Corporations pirate seed and mine genes to make GMOS. Patenting Seed was ecologically, ethically, ontologically wrong. It is a wrong that must be corrected. 33 years ago, I began my journey to protect the Biodiversity the integrity and diversity of Seed, and prevent Biopiracy and patents on seeds.

유전자변형종자는 농민들로부터 해적질한 종자이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종자이다. 여기서 유일한 “발명”은 실험실에서 유전자 총으로 유전자를 쏘거나, 식물의 암인 아그로박테리움으로 세포를 감염시킨 밖에 없다. 기업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들기 위해 씨앗을 훔치고 유전자를 파헤친다. 종자에 대한 특허는 생태적으로, 윤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33년 전, 나는 생물다양성과 종자의 온전성, 다양성을 지키고, 씨앗에 대한 특허와 생물해적질(Biopiracy)을 막기 위한 여정에 올랐다.

Navdanya grew from this commitment to Biodiversity. The movement has reclaimed seed as a commons, and created 150 community Seed Banks. Across the world, we have inspired the Seed Freedom movement. A new consciousness has grown about Seed Sovereignty.

나브다냐는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성장했다. 이 운동은 씨앗이 공유자산임을 알리고, 150개의 공동체 씨앗은행을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씨앗 자유 운동에 힘을 불어넣었다. 종자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커왔다.

Navdanya, the Earth Centred, Women centred movement I started has

established 150 **community seed banks** to keep the seed in the commons, and to protect the richness of the biological diversity of the Seed.

지구 중심의 운동이자 여성 중심의 운동으로서 시작한 나브다냐 운동은 150개의 공동체 씨앗은행을 세워 공유자산으로서 씨앗을 지키고, 종자의 생물학적 다양성의 풍부함을 지키고자 한다.

- 4,000 varieties of rice
 - 250 varieties of wheat
 - 11 varieties of barley
 - 5 barnyard millet varieties
 - 10 varieties of oats
 - 6 varieties of finger millet
 - 3 varieties of foxtail millets of
 - 7 varieties of mustard
 - 450 different medicinal and perennial and deciduous trees used for wood
-
- 쌀 4,000종
 - 밀 250종
 - 보리 11종
 - 피 5종
 - 귀리 10종
 - 손가락조 6종
 - 조 3종
 - 겨자 7종
 - 약용수, 다년생 나무, 목재로 사용되는 낙엽수 450종

The Seeds of Resilience we have conserved have helped recovery after the cyclone, the Tsunami and the floods that have swept Odisha on several occasions. Navdanya has fought and won cases to stop bio-piracy of our seeds and indigenous knowledge of Neem, Basmati

and wheat.

우리가 지켜온 회복의 씨앗은 인도 오디샤주를 몇 번이고 휩쓸었던 홍수, 사이클론, 쓰나미 이후의 복원을 도왔다. 나브다냐는 우리 씨앗과 님나무(Neem), 바스마티 쌀(Basmati), 그리고 밀에 대한 토착 지식을 빼앗으려는 생물해적질에 맞서 싸우고 승리를 거두어왔다.

As rural women we sow the Seeds of Hope and Resilience in times of multiple emergencies - health, hunger, climate, extinction. We grow Gardens of Hope for the Health of the planet and of our communities.

우리 농어촌여성은 건강, 굶주림, 기후, 멸종의 복합적 비상사태 속에서 희망과 회복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지구와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희망의 텃밭을 가꾼다.

Source: 2017, Seeds of Hope, Seeds of Resilience, Navdanya / RFSTE
출처: 2017, Seeds of Hope, Seeds of Resilience, Navdanya / RF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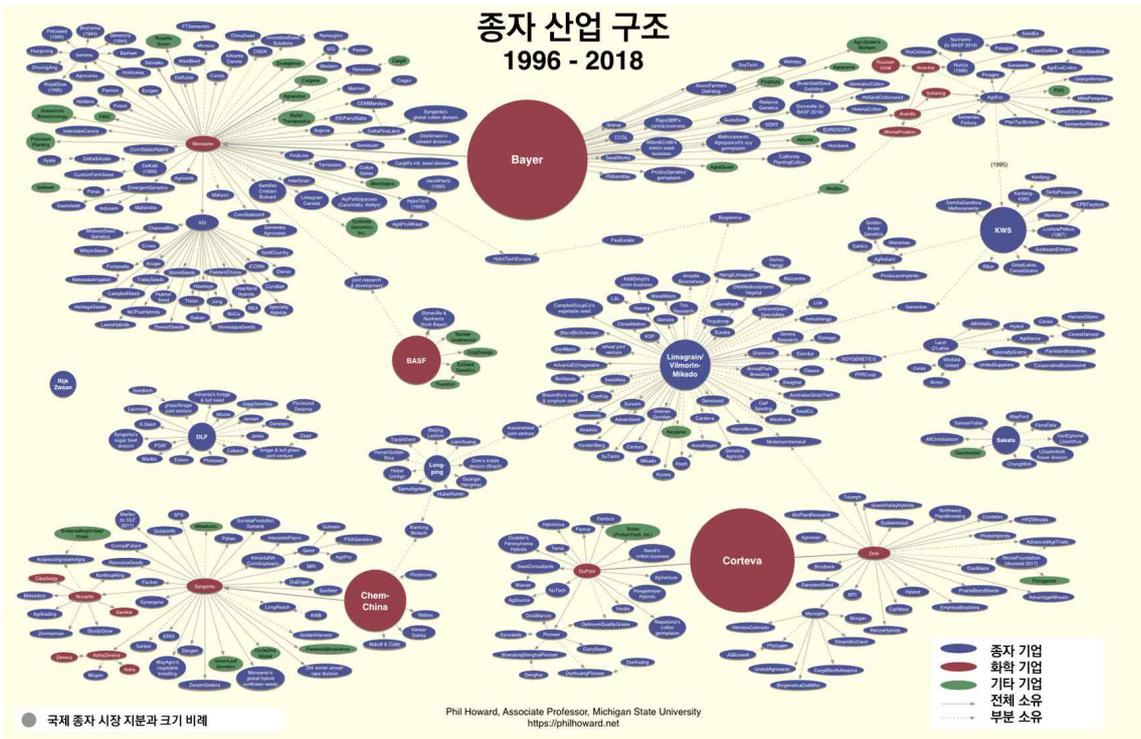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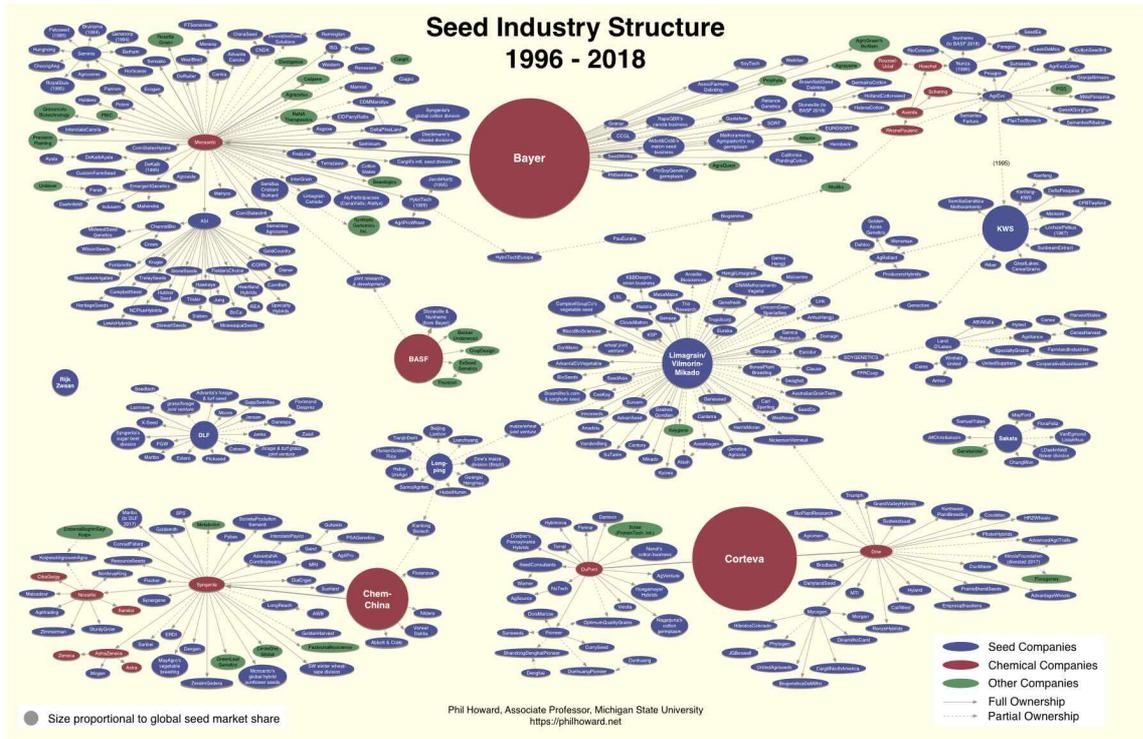
We are showing that the path to a future based on making peace with the planet, regenerating our lands and our cultures. We are sowing the seeds of a sustainable future based on our ecological knowledge and economic values of care and co-creation with nature, for the health and well being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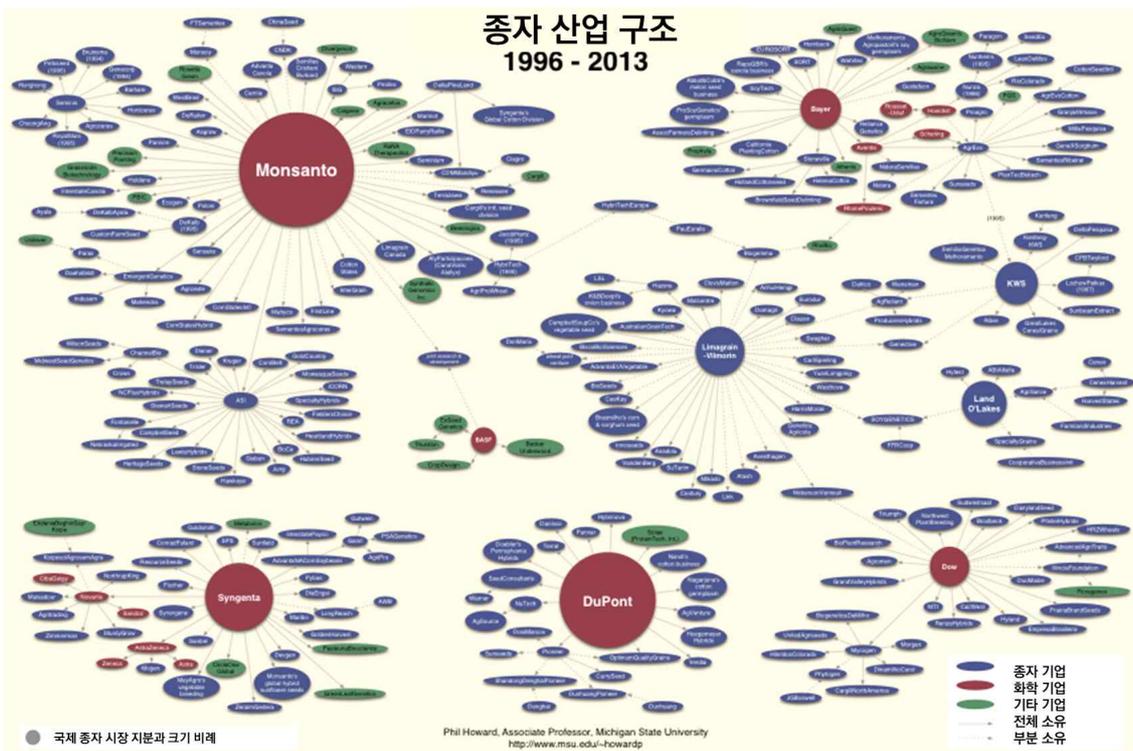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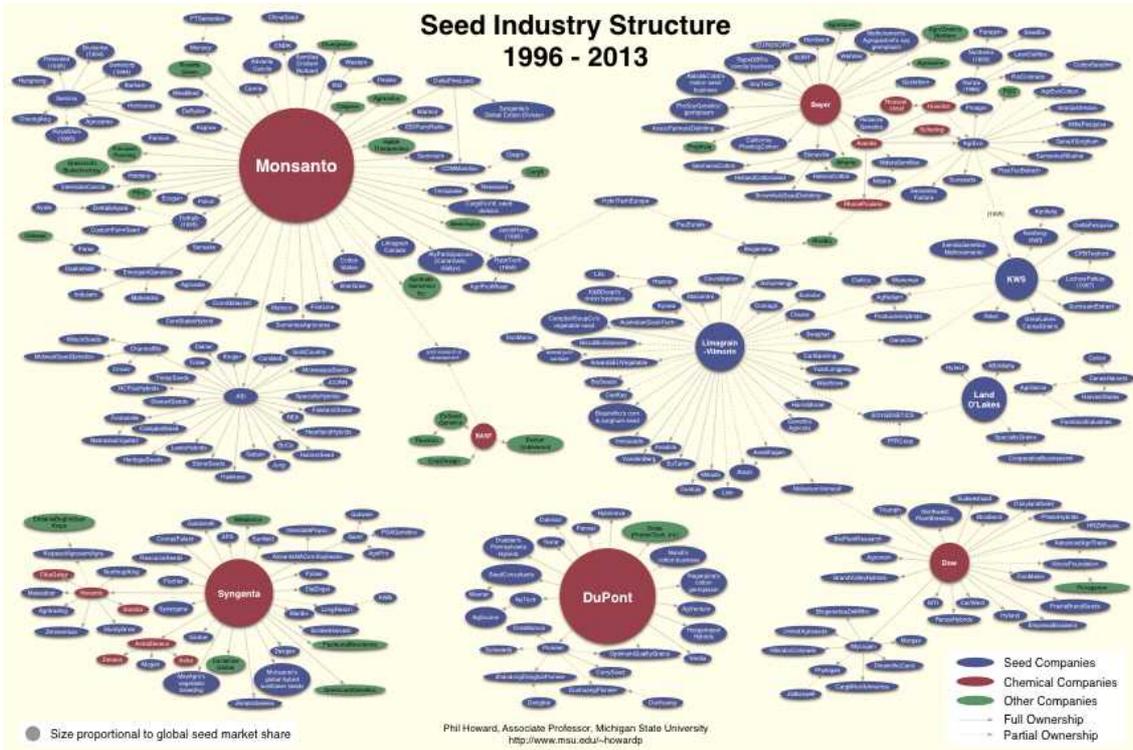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땅과 문화를 닦으며, 지구와 함께하는 평화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모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우리가 가진 생태학적 지식, 자연과 함께 돌보고 창조하는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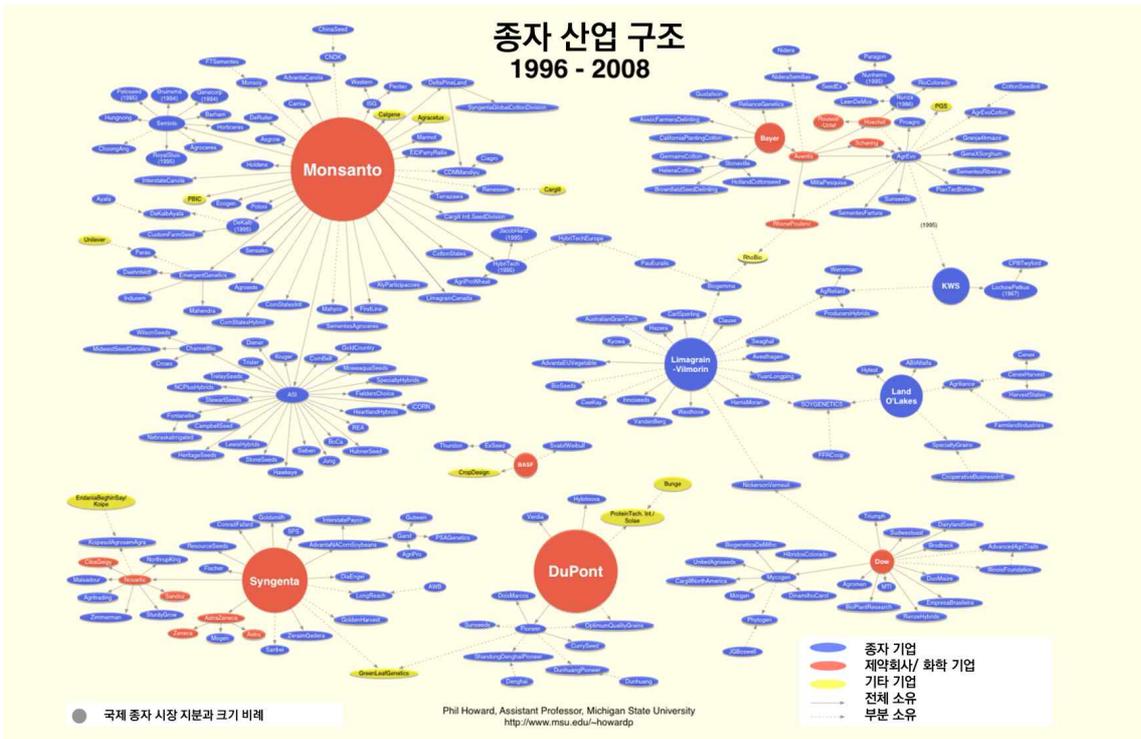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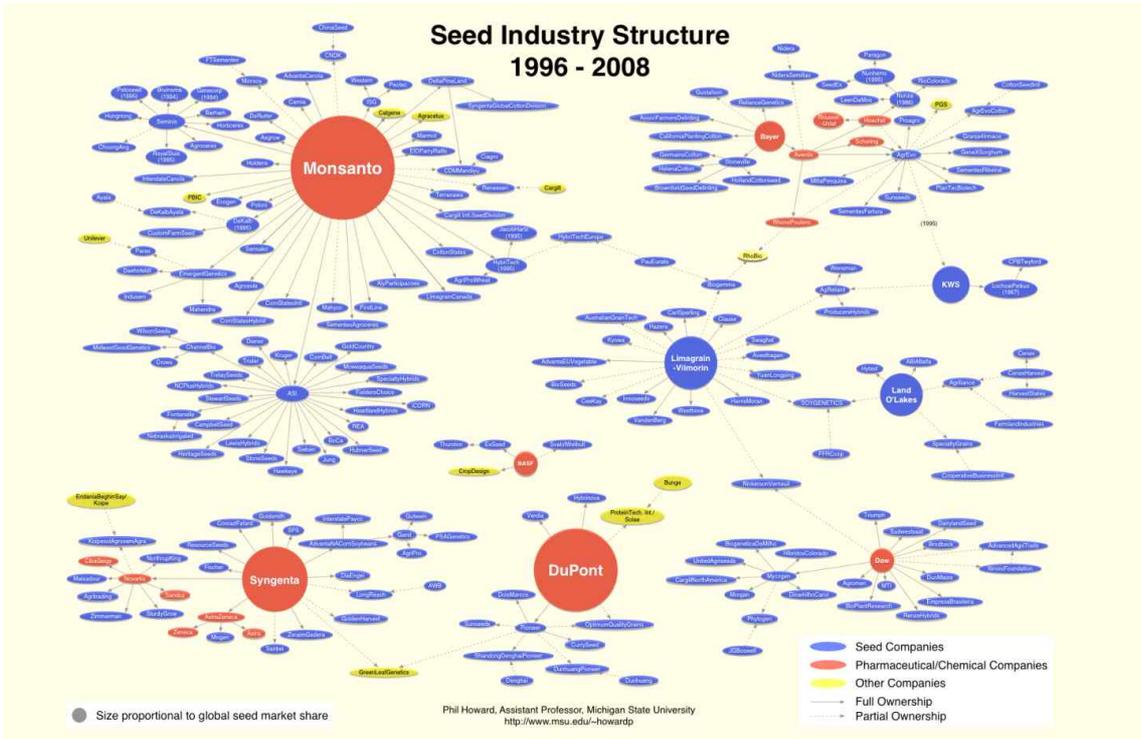
Source: <https://philhowardnet.files.wordpress.com/2018/12/Seed2018-1.png>
출처: <https://philhowardnet.files.wordpress.com/2018/12/Seed2018-1.png>

Source: Howard, Philip H. 2016. Concentration and Power in the Food System: Who Controls What We Eat? London: Bloomsbury Academic.

출처: Howard, Philip H. 2016. Concentration and Power in the Food System: Who Controls What We Eat? London: Bloomsbury Academic.







위기의 해법은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윤금순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

인류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이 위기는 자연과 여성의 지식과 노동을 분리하고 창의성을 무시하는 산업적이고 세계화된 농업이야말로 복합적인 비상사태의 주범이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계가 지구 중심적, 여성 중심적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반다나 시바 박사의 문제인식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구 전반의 세계화 된 시스템이 감염병의 위기, 기후위기, 생물종 다양성의 소멸위기, 식량위기, 경제위기 등 많은 위기를 불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된 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늘 여성들에게 먼저 다가오고 여성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여성들에게 내재화, 내면화 합니다. 여성의 경험과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의 경험에서의 공통성은 공포와 억압, 지배를 통한 자연 자원, 인적 자원의 수탈과 공동체와 인간성의 파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와 전쟁 시기 군대에 의한 성폭력이 군사주의를 문화를 유포하고, 그 후로도 분단 상황에서 이의 확산이 전쟁 중이라는 명분으로 지속되었고 합리화 되었듯이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은 늘 일차적인 피해자가 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탈 식민과 전쟁 이후에도 그 피해는 지속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대한 태도 역시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화해야 되고 세계화 된 무역 체제 안에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니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업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지배논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농업을 생명과 돌봄이 아닌 이윤창출을 위한 희생 수단으로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분단고착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농업이 파괴되는 사례를 만들었으며 그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먼저 희생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된 농업을 발전시키고 지탱해 온 산업적, 가부장적, 획일적, 분단 고착적 농업을 바꿔야 합니다.

농업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농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꿔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을 키우고 가꾸는 일이 본질이고 사회가 어떤 관점으로 농업을 대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지금과 같은 파괴와 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치유와 해법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중층적인 위기의 시대에 세계의 많은 이들이 농업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함께 흙에서 생명을 싹틔우고 키우고 수확해서 갈무리하고 지키는 농업이 종자가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며 단작화, 규모화되고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도 생산 전 과정에서의 참여자와 결정권자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담당하는 농업노동력 담당자로 전락해 왔습니다. 농업생산 과정도 성별 분업화되고 여성의 노동은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그나마 상당량은 비가시화 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제가 잔존하는 속에서 사회적 위계와 결합하여 젠더 위계가 만들어지고 여성은 농업을 통해 자신의 앞날을 열어나가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노동력의 제공자로 소득창출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서로의 울타리로 지지 격려하며 중소농의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가족농 안에서 왜곡된 농업구조와 불평등한 가족관계는 여성의 노동력을 부분노동화 내지 일부 부분노동화하고 여성을 과다노동으로 지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요인이 되어왔고, 여성과 청년들의 농업회피를 유발해 왔습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일찍부터 이런 문제들을 간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왔습니다. 일찍부터 여성들의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지혜와 힘을 모으고 서로를 도와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농생태학을 실천하고 토종종자를 지켜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는 여성들의 생산공동체 ‘언니네 텃밭’은 텃밭이라는 여성들의 생활과 생산이 분리되지 않고 결합된 전체적이고 전통적인 생산공간으로써의 텃밭을 주목하고 농생태적인 생산과 공동체적인 연대의 가치로 살려낸 예입니다.

여성농민이 생산한 텃밭 생산물을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와의 연대 먹거리화 함으로써, 여성농민의 비공식 부분노동을 지불노동으로 바꿔 농민의 소득에 기여하고, 여성노동과 여성농민의 가치를 인정받아 공동체 안에서 여성농민의 역할과 지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작의 처음에는 손 맞잡아준 도시 여성들과의 연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연대란 손잡고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 사회와 인간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이야말로 농업과 여성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당면한 이 위기의 해법은 모두가 연결된 체계로 생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성농민이 있고 여성농민의 가치를 세계와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촌 여성들의 역할’

김정희 (가배울 상임이사)

안녕하세요. 저는 가배울이라는 여성 사회적 기업의 상임이사고 여성학자인 김정희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책을 몇 번 서평한 경험이 있고 대학에 있을 때 수업 교재로도 썼던 저로서는 평소 존경하던 시바 박사님의 대담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간단히 가배울을 소개드립니다. 가배울은 2010년 여성주의 농촌문화답사로 출발했습니다. 농촌 문화답사를 진행하며 농촌 문화의 뿌리가 토종 농사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2013년부터 여성 토종 문화를 살리기 위한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답사, 농민의 꾸러미 사업 지원, 장터 참가를 통한 토종 알리기 홍보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 지난 달 9월에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가배울은 토종 문화를 토종농사, 토종 식문화, 토종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문화·예술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배울은 이 세 가지를 아우르기 위해 공연이 있는 식당을 10월 말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토종 연잎밥, 토종쌀 누룽지(토종쌀 5% 혼입), 토종 흑마늘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토종 가공식품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박사님의 이번 발표문은 평소 박사님의 연구들을 집약적으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글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어 글 전체가 농생태학 개념 사전이라는 인상을 가지며 읽었습니다. 산업적이고 세계화된 산업(industrial, globalised agriculture), 산업적 농업, 단작농, 농생태학, 단위면적당 영양이나 건강, (nutrition/health per acre), 생물다양성 기반 생산성 (biodiversity based productivity of farms, based on total biodiverse outputs of farming systems), 유전자변형종자 등 핵심 개념들을 박사님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은 농어촌 여성들을 지구와 사회를 위한 돌봄 경제를 실천하며 지속가능성 과학, 즉 농생태학의 전문가로 기술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IBL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 유기인증 농지는 181개국 6980만ha이고 이는 전 세계 경지 면적의 1.4%입니다. 한국은 1.2%로 이는 전 세계 유기인증 면적 비율 순위에서 64위입니다. 전체

농지 면적 중 유기 인증 면적이 10% 이상인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합니다(FIBL, Survey 2019;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9: 9~10쪽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무농약 농지를 포함하더라도 인증면적은 4.8%(2016년)에 불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 <https://www.mafra.go.kr/mafra/1284/subview.do>). 물론인증비가 부담돼서 인증을 받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직거래나 하는 소중 농민들도 꽤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로서의 관찰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는 주로 생협과 최근 등장한 '마켓컬리', '오아시스'와 같은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친환경 거대 sns 유통망을 통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전 날이나 이틀 전에 인터넷 주문을 하면 다음 날이나 이틀 뒤 새벽에 주문 물품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주문 형태는 주문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암튼 요지는 한국의 경우 비인증 친환경농을 5% 정도로 가정할 때, 약 90%의 여성농민과 남성농민은 젠더 차이 없이 다국적 기업의 씨앗을 사서, 비료나 농약을 과투여하는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2018년 ha당 농약을 9.5kg, 화학비료를 268kg 사용하고 있는 이는 국제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22&board_cd=INDX_001). 이런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저는 농업에서도 현실적인 이유들에서 여성 농업도 남성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농생태학 여성농업이 비중 있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박사님이 관여하고 있는 테라 마드레와 나브다냐 운동에서 토종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고 소비되고 있는지, 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합니다. 토종의 현지보전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먹어주어야 하고 그래서 박사님도 테라 마드레 식당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배울도 이제 막 현지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식품 생산과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듭니다. 해외에서 잘 되는 사례나 관련 사실통계 등을 말씀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2019),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집적화 방안 연구」

인터넷 자료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22&board_cd=INDX_001

‘농림축산식품부(2019), ‘친환경농업육성’,

<https://www.mafra.go.kr/mafra/1284/subview.do>

지속가능한 미래, 에코페미니즘을 통해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이번 국제포럼에 반다나 시바 선생님을 연사로 모실 것을 추천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오미란입니다. 선생님은 2005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시아여성 평화포럼을 개최할 당시 연사로 모시려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여성운동 연구를 통해 인도 여성들의 전통자원 보존, 생존권 투쟁, 생명운동의 일환이었던 <칩코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나브다냐 운동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후손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은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이고 농업노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이미 농업은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식을 제대로 통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바 선생님은 농어촌 여성들을 “지구와 사회를 위한 돌봄의 경제를 실천하는 지속가능성의 과학 전문가이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구중심적, 여성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만들고 관철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혹시 인도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농생태학, 여성주의 가치 등을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나브다냐 운동은 150개의 공동체 씨앗은행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운영주체와 주요 활동내용, 정책과 제도적 지원 현황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기후환경 위기를 겪으면서 종다양성의 보존, 종자주권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종자에 관해서 “종자산업법”,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종자와 관련해서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준화나 종자에 대한 제도화 과정이 오히려 씨앗에 대한 전통지식과 씨앗을 유지하고 계승한 여성농민들의 전통지식과 자원을 종자산업에 복속시키거나 배제하고 표준화라는 이름으로 약탈할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을 해온 토종씨드림 단체, 여성농업인 단체 중 일부에서 시작되는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등 서서히 씨앗, 종자주권 관련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기 위해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진흥센터 <https://seedcenter.fact.or.kr/>

농촌진흥청유전자원센터연구원 <http://www.genebank.go.kr>

토종종자모임씨드림 <http://cafe.daum.net/seedream>

생태환경의 근본은 사람과 땅, 작물과 환경이 서로 연대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연대와 공존입니다. 그러나 한국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성의 핵심인 순환은 거의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마을이 아이가 있는 마을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의 종자주권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종 자원은 무려 65만종이고, 콩의 경우 4,451 품종 중 3,500여종을 한반도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콩의 90%를 수입하고 있고 콩 수입량의 90%는 미국산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내 것을 내가 돈 주고 사야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구중심적, 여성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세계관 지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배나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나 나눔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분법에서 통합적인 연계로 전화하는 지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여성들이 주도하고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생태페미니즘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행사의 슬로건을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지속한 가능한 미래, 세계 여성농업인이 다함께“

감사합니다.